

<2009년 7월 2일 목요일 새벽잠언>

1. 자기가 죄인인지, 미련한지, 의로운지, 잘못했는지 확실히 시인해야 그 행위에 따라 바로 깨닫고 가게 된다.
2. 자기 죄를 시인치 않는 자는 회개치 않는다. 회개치 않으면 죄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해석) 시인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지고, 마귀와 가까워진다. 섭리 사람 중에 이런 자들이 많다. 나쁜 자들이다.
3. 사람들은 자기 의로움은 시인하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시인을 거부한다. 자기 위신과 체면을 세우려고 죄스러운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는 부르지 않으신다.